

기부의 즐거움과 의미: 도움 제공자의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경험의 차이*

방준호 최종안 최인철 설선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타인을 돕는 행동은 도움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의 행복 또한 증진시킨다. 행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도움 제공을 삶의 의미와 성취감 같은 자기실현적 행복과 관련지어왔으나, 도움 제공의 효용에 초점을 둔 의사결정 연구들은 긍정 정서 증진과 부정 정서 감소와 같은 쾌락적 행복 또한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 과제를 사용하여 도움 제공이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중에서 어떤 측면의 행복과 더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 제공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유형이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참가자들은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되는 54개의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를 보고 1만원 중 얼마를 기부할지 결정한 뒤, 매 결정마다 자기실현적 행복과 쾌락적 행복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답하는 기부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친사회성의 개인차는 사회 가치 지향성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 내에서 기부 금액이 증가할수록 자기실현적 행복과 쾌락적 행복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친사회적 성향의 참가자들에게서는 기부 금액에 따라서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하는 정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기중심적 성향의 참가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움 행동의 결과 도움 제공자가 경험하는 행복을 쾌락적 측면과 자기실현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친사회성의 개인차를 고려함으로써, 도움 제공의 행복 증진 효과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도움 행동, 기부, 쾌락적 행복, 자기실현적 행복, 사회 가치 지향성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2020-2021)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설선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E-mail: ssul@pusan.ac.kr

유전적 관련성이 없는 개인들 간의 협력과 도움 행동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인간은 친족 관계를 넘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타인도 기꺼이 도와주고 (Axelrod & Hamilton, 1981; Nowak & Sigmund, 2005), 이러한 도움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Fehr & Fischbacher, 2003). 인간의 도움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움 제공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주목한다. 인간의 이타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타인을 돕는 행동이 도움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에게도 직,간접적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이 일관되게 제안되어 왔다(Molm, Schaefer, & Collett, 2007; Sober & Wilson, 1998/2013). 행동경제학자 Andreoni(1989, 1990)는 도움 수혜자의 안녕 증진이 도움 제공자에게도 효용(utility)을 지니며, 이러한 효용의 심리적 경험을 “따뜻한 빛(warm glow)”이라고 불렀다.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도움 행동이 도움 제공자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 이익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특히 도움 행동이 긍정 정서 경험을 증진시키고 부정 정서 경험을 감소시키며(Aknin et al., 2013; Bauman, Cialdini, & Kendrick, 1981; Schaller & Cialdini, 1988), 친사회적 가치 추구가 행복과 관련되어 있고(Dambrun & Ricard, 2011; Moynihan, DeLeire, & Enami, 2015; Post, 2005), 타인을 위하는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Dunn, Aknin, & Norton, 2008; Dunn, Whillans, Norton, & Aknin, 2020). Dunn 등(2008)은 도움 행동이 도움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에게도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 제공자의 긍정적 경험 또한 중요한 연구 문제라고 제안하였으며, 도움 행동을 통해 도움 제공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의 유지와 증진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선단체 기부 맥락에서 도움 제공자가 기부 결과 경험하는 심리적 이득으로서의 행복 경험 양상을 살펴보았다. 행복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두 관점을 적용하여, 기부의 즐거움(쾌락적 행복: hedonic happiness)과 의미(자기실현적 행복: eudaimonic happiness)를 구분하고, 기부가 행복의 어떤 측면과 더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친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탐색하였다.

도움 제공과 행복

도움 행동은 도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Dambrun & Ricard, 2011; Dunn et al., 2008; Dunn et al., 2020; Moynihan et al., 2015; Post, 2005; Schaller & Cialdini, 1988). 친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Dambrun & Ricard, 2011; Moynihan et al., 2015),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Post, 2005),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화를 사용하거나(Dunn et al., 2008; Dunn et al., 2020),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울 때(Schaller & Cialdini, 1988), 더 높은 행복감과 긍정 정서를 경험하며 부정 정서는 감소한다. 도움 행동의 결과 도움 제공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국가에서 가계 수입이나 식량 부족 정도, 기타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된다(Aknin et al., 2013). 도움 행동과 행복 사이의 정적 관계는 발달 초기부터 관찰되는데, Aknin, Hamlin, & Dunn(2012)은 2살 이하의 아동들 또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을 도울 때 긍정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도움 제공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메타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와 같은 도움 행동의 제공과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well-being)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고된다(Hui, Ng, Berzaghi, Cunningham-Amos,

& Kogan 2020; Wheeler, Gorey, & Greenblatt, 1998). 단순히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체에 고통을 야기하는 형태의 도움 행동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 헌혈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헌혈을 한 사람들은 헌혈 이후, 헌혈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다(Hinrichs et al., 2008; Piliavin, Callero, & Evans, 1982; Zillmer, Glidden, Honaker, & Meyer, 1989). 신장이나 골수를 기증한 장기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장기 기증이 높은 만족감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Brethel-Haurwitz & Marsh, 2014; Switzer, Simmons, & Dew, 1996).

의사결정의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움 제공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의 결과 획득할 수 있는 비용 대비 이득이 그 선택의 효용을 결정한다고 볼 때, 도움 행동은 도움 제공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비용을 치러야 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사결정과는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Hare, Camerer, Knoeple, O'Doherty, & Rangel, 2010). 하지만 도움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도움 행동이 도움 수혜자의 이득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도움 제공자에게도 사회적 재화(social capital)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으며, 도움 제공자에게도 보상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설선혜, 이민우, 김학진, 2014; Andreoni, 1989). 실제로 뇌영상 연구들에 따르면, 도움 행동을 통해 수혜자의 안녕이 증진될 때 도움 제공자의 복측선조체와 복내측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arbaugh, Mayr, & Burghart, 2007; Hare et al., 2010; Sul et al., 2015), 이 영역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영역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움 행동은 도움 제공자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다주며, 도움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의 행복 증진에도 기

여한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의 즐거움과 의미

도움 행동이 도움 제공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러한 효과가 행복의 어떠한 측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도움 행동의 심리적 결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행복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두 관점(Deci & Ryan, 2008; Waterman, 1993), 쾌락주의(hedonism)와 자기실현적 관점(eudaimonism)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Cialdini, Baumann, & Kenrick(1981)은 도움 행동도 다른 이익-비용 기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쾌락적 효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면서, 도움 행동의 주된 긍정적 결과는 긍정 정서의 증가와 부정 정서의 감소라고 주장하였다(Cialdini & Kenrick, 1976). 반면에 도움 행동이 삶의 목적과 관련된 자기실현적 행복이나 소속감과 관련된 사회적 행복 증진과 더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쾌락적 행복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Hui et al., 2020; Son & Wilson, 2012).

쾌락적 측면의 행복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이 경험하는 즐거움의 총체이자(Huta, 2017),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적 상태로(권석만, 2008), 개인의 삶의 목표는 자신이 경험하는 즐거움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Ryan & Deci, 2001). 쾌락적 행복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되고 측정되는데,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으로 정의되는 정서적 요인과 삶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되는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된다(Diener, 2009a, 2009b). 행복에 대한 쾌락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키고 부정 정서 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으며, 쾌락적 행복을 목적 달성의 결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Deci & Ryan, 2008). 반면, 행복에 대한

자기실현적 관점에서는 행복을 개인의 강점 및 내재된 잠재력의 발현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Peterson, Park, & Seligman, 2005; Ryff, 1989).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한 삶이란 개인적 혹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되며(Deci & Ryan, 2008), 자아실현 및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의미감과 성취감이 증시된다(Huta, 2017).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행위의 목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행위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부산물로 간주된다(Ryan & Deci, 2001; Waterman, 1993). 자기실현적 행복은 흔히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통해 측정되며(권석만, 2008; Ryff, 1989; Ryff & Singer, 1996), 학자들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목적의식,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공동체에의 기여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두 관점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는 도움 행동이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행복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실현적 관점의 기반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자기 함양과 미덕(virtue)의 성취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며(Huta, 2017),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측정된 자기실현적 행복의 개념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McMahan & Estes, 2011).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고(Midlarsky, 1991),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Tongeren, Green, Davis, Hook, & Hulsey, 2016). 실제로 자기보고 설문이나 경험 표집 기법을 사용한 일부 경험적 증거는 도움 행동이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과 더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장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유무가 개인의 자기실현적 행복만을 예측하며(Son & Wilson, 2012), 다양한 형태의 친사회적 행동이 쾌락적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행복과 더 강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Hui et al., 2020).

그러나 도움 행동과 쾌락적 행복 간의 관련

성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도움 행동의 심리적 효용으로 제안된 ‘따뜻한 빛(warm glow)’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만족감과 같은 쾌락적 행복을 대표한다(Andreoni, 1989, 1990). 이와 유사하게, 타인을 돕는 행위는 행위자의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고(Cialdini et al., 1981; Cialdini & Kenrick, 1976), 타인을 위한 소비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에서도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행복의 개념을 적용하였다(Aknin et al., 2013; Dunn et al., 2008; Kahneman, 1999; 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대부분의 뇌영상 연구 결과들도 자기실현적 관점보다는 쾌락적 관점에서 도움 제공의 심리적 결과를 정의하고 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을 이용해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신경기제를 연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움 제공에 대한 자기실현적 측면을 측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도움 제공의 심리적 결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도움 행동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보상과 관련된 신경기제도 주로 보상 기대 및 즐거움 경험과 관련된 뇌 구조들을 포함한다(Harbaugh et al., 2007; Izuma, Saito, & Sadato, 2010; Moll et al., 2006; Sul et al., 2015). 도움 제공이 쾌락적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자기실현적 행복과 쾌락적 행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의 두 측면 중 어떤 측면이 도움 제공자의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바가 없다.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도움 행동과 행복 경험의 차이

도움 행동은 인간에게서 보편적으로 관찰되지만 그 정도에는 큰 개인차가 존재한다. 도움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예를 들어, 성격 요인: Habashi, Graziano, & Hoover, 2016; 공감: Wilhelm & Bekkers, 2010; 도덕성: De Groot &

Steg, 2009 등) 중에서도, 타인의 안녕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 가치 지향성 (social value orientation)은 사회적 의사결정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동시에 높은 예측력을 보인다(Pletzer et al., 2018; Van Lange, De Bruin, Otten, & Joireman, 1997). 사회 가치 지향성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선택에 대한 기질적 선호로 정의된다. 사회 가치 지향성은 자기 이익 대비 타인의 이익에 대한 고려 정도를 연속선상에서 측정하기도 하지만(Liebrand, 1984; Murphy, Ackermann, & Handgraaf, 2011), 공동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친사회적(prosocial) 성향, 타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성향,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경쟁적(competitive) 성향으로 범주화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대체로 경쟁적 성향의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Van Lange & Kuhlman, 1994),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주의적 성향과 경쟁적 성향을 친사회적 성향과 대비되는 자기중심적(proself) 성향으로 묶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다(Bogaert, Boone, & Declerck, 2008; Van Lange, 1999; Van Lange, De Cremer, Van Dijk, & Van Vugt, 2007a).

다양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이용한 실험실 연구 결과들은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증진하는 선택을 선호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De Cremer & Van Dijk, 2002; De Cremer & Van Lange, 2001; Kramer, McClintock, & Messick, 1986; Pruyt & Riezebos, 2001). 일상생활 맥락에서도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도움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자원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 아니라(McClintock & Allison, 1989), 다양한 형태의 기부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한다(Van Lange, Bekkers,

Schuyt, & Vugt, 2007b).

이처럼 사회 가치 지향성과 도움 행동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서 도움 제공의 심리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개인의 행동 특성과 행복의 두 측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친사회적 성향의 도움 제공자들은 자기실현적 행복을, 자기중심적 성향의 도움 제공자들은 쾌락적 행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에 대한 쾌락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목적의 차이가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와 중첩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행복의 두 측면이 상이한 삶의 지향이나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Pearce, Huta, & Voloaca, 2020). 이 연구의 저자들에 따르면, 행복에 대한 쾌락적 관점에서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목적은 돈이나 권력, 개인의 영향력과 같이 즉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좁은 범위의 대상들과 관련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Anic & Tončić, 2013; Berzonsky, Ciecuch, Duriez, & Soenens, 2011; Zimbardo & Boyd, 2015). 반면, 행복에 대한 자기실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의 대상에 관심을 둔다. 자기실현적 행복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와 같이 자신 너머의 대상으로까지 확장되고, 미래 조망과 같이 현재를 넘어선 시점을 포함한다(Baumeister, Vohs, Aaker, & Garbinsky, 2013; Steger, Kashdan, & Oishi, 2008). 사회 가치 지향성에서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타인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Van Lange, 1999), 친사회적 성향이 쾌락적 관점보다는 자기실현적 관점과 더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둘째,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도움 제공 행동에 개입하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행복의 서로 다른 측면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Bogaert 등(2008)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과 관련된 신호에 따라 협력적 선택을 조절한다(Kuhlman & Marshello, 1975). 반면,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외적 보상보다는 친사회성의 보호와 관련된 신호에 반응한다. 이들은 타인과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며 자신의 협력이 타인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나 호혜 규범(De Cremer & Van Lange, 2001), 상대방의 정직성에 따라 협력을 조절하거나(Van Lange & Kuhlman, 1994), 집단 구성원의 배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Stouten, De Cremer, & Van Dijk, 2005). 도움 행동의 외적 보상은 보상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의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행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규범이나 책임의 준수, 친사회적·도덕적 가치의 확인은 자기실현적 행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도움 제공자가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을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실현적 행복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선단체 기부 맥락에서 도움 제공자의 행복 경험을 쾌락적 측면과 자기실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서 행복 경험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부 금액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중 어떤 행복이 증가하는가? 둘째,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서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도움 제공이 긍정 정서를 증진시키고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며 보상으로 경험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

는 기부와 쾌락적 행복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지만(Andreoni, 1989, 1990; Cialdini et al., 1981; Cialdini & Kenrick 1976; Harbaugh et al., 2007; Izuma et al., 2010; Moll et al., 2006; Sul et al., 2015),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비교한 연구들은 도움 행동이 자기실현적 행복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Son & Wilson, 2012; Hui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부 금액에 따라서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이 모두 증가하지만, 자기실현적 행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자기중심적 성향과 쾌락적 행복(Anic & Tončić, 2013; Kuhlman & Marshello, 1975), 친사회적 성향과 자기실현적 행복(Bogaert et al., 2008; Pearce et al., 2020)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친사회적 성향의 참가자들이 기부 결과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을 더 크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자기중심적 성향의 참가자들에게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도움 행동과 도움 제공자의 행복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부 의사결정 과제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되는 다양한 자선단체들의 이름과 활동 목적을 보고 매 시행마다 주어지는 1만원 중 얼마를 기부할지 결정한 뒤, 결정 직후에 경험하는 행복의 정도를 쾌락적 측면과 자기실현적 측면에서 평정하였다. 기부 과제에서 기부한 금액은 실제로 해당 자선단체에 전달되었으며 기부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연구 참가자 본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기부상황과 유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model)을 사용하여 각 참가자 내에서 기부 금액의 증감에 따라 행복 경험이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행복의 쾌락적 측면과 자기실현적 측면 중 어떤 측면이 기부와 더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의 사회 가치 지향성을 설문으로 측정한 뒤, 기부 결과 경험

하는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양상에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 보았다.

방 법

예비 설문

기부 과제에 사용할 자선단체 목록을 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 참가자들(대학생 26명, 남성: 9명; 연령: $M = 22.231$ 세, $SD = 2.238$)에게 국내외에서 실제로 활동 중인 100개의 자선단체의 이름과 로고, 활동 목적 및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나씩 제시하고, 각 자선단체가 얼마나 익숙하고 친근한지(친숙성), 자신과 얼마나 가깝고, 연관되어 있는지(자신과의 관련성), 특정 종교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종교성), 얼마나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지(신뢰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영향력)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예비 설문 참가의 보상으로 4,500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이 지급되었고, 예비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본 연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기부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기부하지 않은 돈을 자신이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숙성, 관련성, 신뢰도 및 영향력에서 높은 점수, 종교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단체를 선정하되, 활동 목적이 중복되는 단체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54개의 자선단체를 선정하였다. 예비 설문의 구체적인 문항, 예비 설문 결과의 기술 통계량 및 기부 과제에 선정된 자선단체 목록은 부록 I 과 II에 제시되었다.

연구 참가자

46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

석에는 기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모형(선형 혼합 모형)을 적용할 수 없었던 1명과 사회 가치 지향성 설문에서 비일관된 응답을 하여 성향을 구별할 수 없었던 5명을 제외한 40명이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는 남성 16명, 여성 2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725($SD = 2.727$)세였다. 연구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3,000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이 기본 보상으로 지급되었으며, 참가자마다 기부 의사결정 과제 수행 중 무작위로 선택된 시행의 응답에 따라 최대 10,000원까지 추가 보상이 지급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 안내문을 읽고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는 실험 설명, 기부 과제, 설문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설명문과 연구 참가 동의서를 제공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가 의사를 밝힌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 번에 최대 4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였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여 서로의 화면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자선단체에 얼마나 기부할지 결정하고 이에 따른 행복 경험을 평정하는 기부 과제, 사회 가치 지향성 측정을 위한 설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설문을 포함한 모든 과제는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되었고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기부 과제와 행복 경험 측정

기부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자선단체에 얼마를 기부할지 결정하고 그 직후, 그 순간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받았다(그림 1A). 기부 과제는 총 54 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비 설문을 통해 선정된 54개 자선단체가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매 시행마다 4초간의 고정점이 제시된 후, 자선단체의 이름과 로고, 간단한 활동 목적이 제시되었다. 매 시행마다 1만 원이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으며, 참가자들은 0원부터 1만원 사이에서 1천원 단위로 기부금을 자유롭게 결정하였다. 기부 금액을 결정하고 나면,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과 관련된 기술문이 각각 하나씩 차례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각의 문장이 그 순간의 경험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안내받았다. 평정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좋은 삶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써 쾌락적 요인과 자기실현적 요인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McMahan과 Estes(2011)의 The beliefs about well-being scale(BWBS) 척도의 개념적 틀을 참고하였다. BWBS 척도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척도 문항들을 과제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쾌락적 행복 측정 문항으로는 “즐거움을 느낀다.”,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를 사용하였고 자기실현적 행복 측정 문항으로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성취감을 느낀다.”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쾌락적 행복 측정 3문항 × 자기실현적 행복 측정 3문항 × 제시 순서 2가지)의 질문 쌍이 3회 반복되어 54개 시행에서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었다. 기부 과제는 Psychopy 2(Peirce, 2007)를 이용해 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기부금 결정과 행복 평정에서 모두 키보드의 화살표와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실험실에서의 기부 상황을 실제 기부 상황과 유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참가자가 수행한 54번의 기부 시행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실제 기부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시행에서 주어진 만 원 중 기부금을 제외한 차액은 연구 참가 보상에 더해져 추가 보상으로 참가자에게 지급되었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선택된 시행에서 참가자가 5천원을 기부했다면, 실

제로 5천원을 해당 자선단체에 기부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5천원은 참가자 기본 보상에 더해져 추가 보상으로 지급되었다. 참가자의 과제 수행이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및 추가적인 보상이 계산되는 방식은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 연구 안내문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공지되었으며, 예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확인하였다.

친사회성의 개인차 측정

참가자들의 친사회성은 Triple-Dominance measure를 사용하는 사회 가치 지향성 설문으로 측정하였다(Messick & McClintock, 1968; Van Lange & Kuhlman, 1994). 설문은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마다 자신과 타인이 획득할 점수에 대한 세 가지 분배 옵션이 제시된다. 분배 옵션은 각각 친사회적(prosocial),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경쟁적(competitive) 옵션으로 구분되며, 9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에서 동일한 유형의 옵션을 선택할 경우, 해당 유형을 개인의 사회 가치 지향성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참가자가 친사회적 성향(남성:7명; 연령: $M = 23.400$ 세, $SD = 3.269$), 20명의 참가자가 개인주의적 성향(남성:8명; 연령: $M = 22.500$ 세, $SD = 2.283$), 5명의 참가자가 경쟁적 성향으로 구분되었으며(남성:1명; 연령: $M = 21.600$ 세, $SD = 2.608$), 경쟁적 성향을 독립적인 집단으로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참가자가 모집되지 않아, 개인주의적 성향과 합하여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남성:9명; 연령: $M = 22.320$ 세, $SD = 2.322$).

분석 방법

기부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경험 및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R(R Core Team, 2020)의 'lme4

package'(Bates, Maechler, Bolker, & Walker, 2015)를 이용해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측정 문항의 응답이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어 사용되었으며,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질문의 응답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매 시행에서의 기부금이 참가자 수준에서 평균 중심화되어 모형의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사회 가치 지향성 및 행복의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dummy) 변인(사회 가치 지향성: 0 = 친사회적, 1 = 자기중심적; 행복의 종류: 0 = 쾌락적 행복, 1 = 자기실현적 행복)도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모형 1에서는 기부금의 증가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사이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기부금과 행복의 종류, 두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시행 수준(1수준)의 예측 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는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 기부금의 증가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 가치 지향성을 개인 수준(2수준) 예측 변인으로 추가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두 모형 모두 참가자마다 절편이 무선 변인(random variable)으로 고려되었으며 기부금, 행복의 유형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무선 변인으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각 예측 변인의 유의성 검증은 R의 ‘lmerTest’를 이용해 수행되었으며(Kuznetsova, Brockhoff, & Christensen, 2017), 여기서 Satterthwaite 추정치를 통해 계산된 자유도를 이용한 단일 표본 t검증을 각 예측 변인의 회귀 계수에 대해 수행하였다(Luke, 2017). 모형 1과 모형 2의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모형 1. } Y_{ij} &= \beta_{0j} + \beta_{1j}X_{1ij} + \beta_{2j}X_{2ij} + \beta_{3j}X_1X_{2ij} + \epsilon_{ij} \\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1j} &= \gamma_{10} + u_{1j} \\ \beta_{2j} &= \gamma_{20} + u_{2j} \end{aligned}$$

$$\begin{aligned} \beta_{3j} &= \gamma_{30} + u_{3j} \\ Y_{ij} &= \text{행복 평정치}, X_{1ij} = \text{기부금}, \\ X_{2ij} &= \text{행복의 종류}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모형 2. } Y_{ij} &= \beta_{0j} + \beta_{1j}X_{1ij} + \beta_{2j}X_{2ij} + \beta_{3j}X_1X_{2ij} + \epsilon_{ij} \\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j + u_{0j} \\ \beta_{1j} &= \gamma_{10} + \gamma_{11}W_j + u_{1j} \\ \beta_{2j} &= \gamma_{20} + \gamma_{21}W_j + u_{2j}, \\ \beta_{3j} &= \gamma_{30} + \gamma_{31}W_j + u_{3j} \\ Y_{ij} &= \text{행복 평정치}, X_{1ij} = \text{기부금}, \\ X_{2ij} &= \text{행복의 종류}, W_j = \text{사회 가치 지향성} \end{aligned}$$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선형 혼합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주요 측정치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가자들은 매 시행마다 주어지는 1만원 중에서 평균 4,573($SD = 2,261$)원 기부하였으며, 54번의 시행 중에서 평균 46.044($SD = 10.932$)회 기부하였다. 참가자 수준과 시행 수준이 혼합되어있는 본 연구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각 참가자 내에서 시행 수준에서의 상관계수를 구한 뒤 r-to-z 변환을 실시한 z 점수의 평균을 다시 z-to-r 변환하였다. 즉, 시행 수준에서 구한 상관계수의 참가자 간 평균을 구하여, 기부 의사 결정에서 기부 금액과 쾌락적 행복 평정치, 자기실현적 행복 평정치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단, 기부 빈도는 참가자마다 하나의 값만 구할 수 있으므로, 기부 빈도와 다른 변인들 간 상관은 참가자 수준에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표 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표

	N	평균	표준편차	상관표		
				기부금	기부빈도	쾌락적 행복
기부금(천원)	45	4.573	2.261	1		
기부빈도(회)	45	46.044	10.932	0.637***	1	
쾌락적 행복	45	4.770	1.701	0.476***	0.590***	1
자기실현적 행복	45	4.393	1.586	0.625***	0.584***	0.382**

주1. 기부빈도는 54개 시행 중 기부한 시행 횟수,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은 7점 척도 상에서의 평정 점수를 나타냄.

주2. 상관계수는 각 참가자별 상관계수의 평균을 나타냄. 단, 기부빈도가 포함된 상관계수의 경우 참가자 수준에서의 상관계수임.

** $p < .01$, *** $p < .001$.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 쾌락적 행복 대 자기실현적 행복

먼저, 친사회성의 개인차와 무관하게 기부 결과 경험하는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선형 혼합

모형(모형 1)을 검증하였다(표 2). 매 시행마다의 기부금, 행복의 종류, 그리고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 변수로 투입하여 매 시행마다의 행복 평정 점수를 예측한 결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073, SE = 0.029, $t(30.713) =$

표 2. 선형 혼합 모형 1의 고정 및 무선 효과

예측변인	Estimated parameter	SE	df	t	p
고정 효과					
(상수)	4.778	0.123	38.996	38.778***	.000
기부금	0.327	0.025	22.338	12.847***	.000
행복의 유형	-0.359	0.054	39.008	-6.675***	.000
기부금 × 행복의 유형	0.073	0.029	30.713	2.497*	.018
무선 효과					
참가자 (상수)	0.572	0.756			
참가자 기부금	0.017	0.132			
참가자 행복의 유형	0.045	0.212			
참가자 기부금 × 행복의 유형	0.018	0.136			
잔차	1.913	1.383			

주. 기부금은 참가자 수준에서 평균 중심화 되었으며, 행복의 유형은 더미 변인(0 = 쾌락적 행복; 1 = 자기실현적 행복)을 이용해 코딩하였음.

* $p < .05$, *** $p < .001$.

2.497, $p = 0.018$].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를 사후 분석한 결과,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모두 증가하지만[쾌락적 행복에서 기부금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327, $SE = 0.025$, $t(22.338) = 12.847$, $p < 0.001$; 자기실현적 행복에서 기부금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400, $SE = 0.033$, $t(23.399) = 12.125$, $p < 0.001$], 자기실현적 행복이 쾌락적 행복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여 상호작용이 유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B). 사회 가치 지향성이 분류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고[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083, $SE = 0.028$, $t(34.344) = 3.002$, $p = 0.005$], 성별과 연령, 기부 빈도를 공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여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073, $SE = 0.029$, $t(31.748) = 2.532$, $p = 0.017$].

한편, 선형 혼합 모형에서 행복 종류의 주효과 또한 유의하여, 기부금과 무관하게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쾌락적 행복을 자기실현적 행복보다 높게 평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복 종류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359, $SE = 0.054$, $t(39.008) = -6.675$, $p < 0.001$]. 선형 혼합 모형에서 행복 유형의 주효과는 그림 1B에서 절편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기부금이 참가자 수준에서 평균 중심화 되어 선형 혼합 모형에 투입되었으므로 각 참가자들이 기부 과제 내에서 자신이 기부한 금액의 평균만큼 기부했을 때, 자기실현적 행복(절편: estimated parameter = 4.419, $SE = 0.133$)에 비해 쾌락적 행복(절편: estimated parameter = 4.778, $SE = 0.123$)을 더 크게 보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기부를 더 많이 했던 시행에서 더 큰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기부 결과 행

복이 증진되는 정도는 쾌락적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행복에서 더 컸다.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기부 경험의 차이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서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자들을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매 시행마다의 기부금, 행복의 종류,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매 시행마다의 행복 평정 점수를 예측하는 정도에서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는 선형 혼합 모형(모형 2)을 검증하였다(표 3). 예상했던 대로, 기부금과 행복의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3원 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119, $SE = 0.056$, $t(27.382) = -2.110$, $p = 0.044$].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집단은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하고[쾌락적 행복에서 기부금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286, $SE = 0.041$, $t(19.007) = 7.051$, $p < 0.001$; 자기실현적 행복에서 기부금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431, $SE = 0.053$, $t(20.914) = 8.091$, $p < 0.001$],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부금과 행복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144, $SE = 0.043$, $t(25.302) = 3.332$, $p = 0.002$](그림 1C). 자기중심적 집단은 기부금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쾌락적 행복에서 기부금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355, $SE = 0.033$, $t(21.775) = 10.749$, $p < 0.001$; 자기실현적 행복에서 기부금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380, $SE = 0.043$, $t(22,935) = 8.914$, $p < 0.001$]. 하지만, 두 행복의 증가 정도를 비교한 결과, 두 행복의 증가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기

표 3. 선형 혼합 모형 2의 고정 및 무선 효과

고정 효과	Estimated parameter	SE	df	t	p
고정 효과					
(상수)	4.738	0.204	38.005	23.268***	.000
기부금	0.286	0.041	19.007	7.051***	.000
행복의 유형	-0.276	0.087	37.966	-3.156**	.003
사회 가치 지향성	0.063	0.258	38.007	0.246	.807
기부금 × 행복의 유형	0.144	0.043	25.302	3.332**	.003
기부금 × 사회 가치 지향성	0.068	0.052	20.044	1.308	.206
행복의 유형 × 사회 가치 지향성	-0.134	0.111	37.983	-1.211	.233
기부금 × 행복의 유형 × 사회 가치 지향성	-0.119	0.056	27.382	-2.110*	.044
무선 효과	분산	SD			
참가자 (상수)	0.587	0.766			
참가자 기부금	0.018	0.134			
참가자 행복의 유형	0.044	0.209			
참가자 기부금 × 행복의 유형	0.015	0.124			
잔차	1.913	1.383			

주. 기부금은 참가자 수준에서 평균 중심화 되었으며, 행복의 유형(0 = 쾌락적 행복; 1 = 자기실현적 행복)과 사회 가치 지향성(0 = 친사회적; 1 = 자기중심적)은 더미 변인을 이용해 코딩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부금과 행복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025, SE = 0.036, $t(30.847) = 0.706$, $p = 0.485$ (그림 1C). 기부금과 행복의 종류,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성별과 연령, 기부 빈도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3원 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122, SE = 0.056, $t(28.287) = -2.197$, $p = 0.036$].

한편, 모형 2에서도 행복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사회 가치 지향성 집단을 구분해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기부금과는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자기실현적 행복(친사회적 집단의 절편: estimated parameter = 4.463, SE = 0.219; 자기중심적 집단의 절편: estimated parameter = 4.392, SE =

0.170)에 비해서 쾌락적 행복(친사회적 집단의 절편: estimated parameter = 4.738, SE = 0.204; 자기중심적 집단의 절편: estimated parameter = 4.802, SE = 0.158)을 더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친사회적집단에서 행복 종류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276, SE = 0.087, $t(37.966) = -3.156$, $p < 0.003$; 자기중심적 집단에서의 행복 종류의 주효과: estimated parameter = -0.410, SE = 0.068, $t(38.005) = -6.050$, $p < 0.001$]. 행복 종류와 집단 간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2원 상호작용 효과: estimated parameter = -0.134, SE = 0.111, $t(37.983) = -1.211$, $p = 0.233$].

모형 2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이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서

방준호 등 / 기부의 즐거움과 의미: 도움 제공자의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경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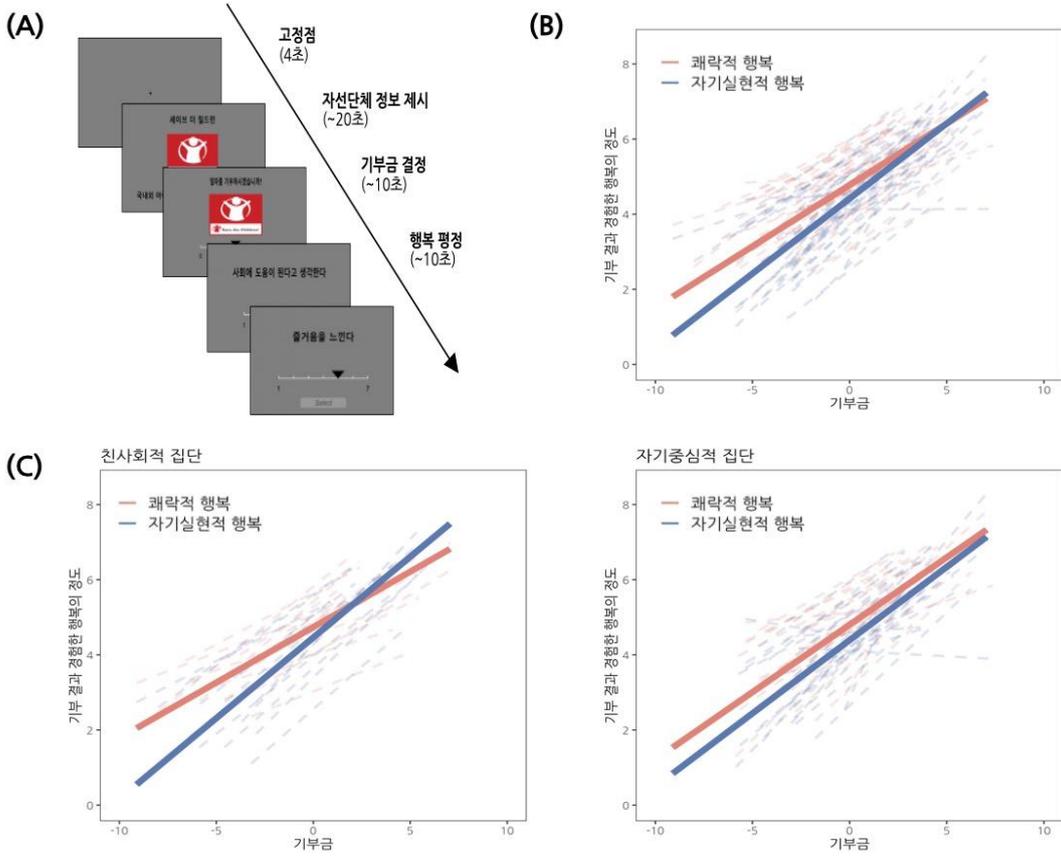


그림 1. 기부 과제 예시 및 주요 연구 결과. (A) 기부 과제 예시. (B) 모형 1에서 기부금의 증가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 패턴. (C) 친사회적 집단과 자기중심적 집단에서 기부금의 증가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 패턴.

주. (B), (C) 그래프 모두 기부금은 참가자 수준에서 평균 중심화 되었으며, 점선은 참가자 수준, 실선은 집단 수준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냄.

달라졌다. 두 집단 모두 기부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사회적 집단은 쾌락적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폭이 더 컸다. 반면에 자기중심적 집단에서는 기부 결과 자기실현적 행복과 쾌락적 행복이 증가하는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움 제공의 행복 증진 효과가 행복의 종류와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선단체 기부 과제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기부 의사결정을 한 직후의 행복 경험을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으로 구분하여 측정 한 뒤, 선형 혼합 모형을 사용하여 기부의 결과로 경험되는 행동의 양상이 사회 가치 지향성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들은 기부 금액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하였다. 둘째, 기부 금액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 정도를 비교한 결과,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은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 달라졌다. 기부 금액이 증가할수록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경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자기실현적 행복이 쾌락적 행복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친사회적 참가자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자기중심적 참가자들의 경우,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기부와 행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기부가 수혜자의 안녕감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행위자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한다(Aknin et al., 2013; Dunn et al., 2008). 그러나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움 제공자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혼재된 결과들이 보고되어왔다. 본 연구는 행복의 쾌락적 측면과 자기실현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기부가 그 수혜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안녕 또한 증진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재검증하는 동시에,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쾌락적 측면의 행복보다는 의미감이나 성취감 같은 자기실현적 측면의 행복 증진과 더욱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즐거움이나 기쁨, 만족감과 같은 쾌락적 측면의 행복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이나 재화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이유로 제안되어 왔으며(Andreoni, 1989, 1990; Cialdini et al., 1981; Cialdini & Kenrick, 1976), 도움 행동을 통해 증진된 쾌락적 행복감은 개인의 도움 행동을 다시금 증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knin, Dunn, & Norton, 2012; Isen & Levin,

1972). 본 연구에서도 기부와 쾌락적 행복 사이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존재하여 이러한 주장을 일부 지지한다. 그러나 더 주목할만한 결과는, 자기실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쾌락적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행복이 기부 행동과 더 강한 관련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림 1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의 기부금이 낮을 때는 자기실현적 행복보다는 쾌락적 행복이 더 크지만,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쾌락적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행복이 더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친사회성을 크게 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쾌락적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행복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Pearce et al., 2020)에서도 비교적 성취하기 쉬운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은 쾌락적 행복 및 자기실현적 행복 모두와 관련된 반면, 성취하기 어려운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기실현적 행복에만 관련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기부 결과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이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라 참가자들을 친사회적 집단과 자기중심적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친사회적 참가자들은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쾌락적 행복보다 자기실현적 행복을 더 크게 경험하지만, 자기중심적 참가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사회성의 개인차와 도움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동기(Hein, Morishima, Leiberg, Sul, & Fehr, 2016)나 의사결정 과정(Balliet, Parks, & Joireman, 2009)에 초점을 두었으며, 도움 제공의 결과를 경험하는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 친사회성의 개인차와 기부 행동, 행복의 종류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Bogaert et al., 2008; Pearce et al., 2020),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도움 행동의 발생 이후 경험되는 행복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부 과제를 사용하여 기부 의사결정 이후에 그 결과로서 경험하는 행복을 측정하고 도움 제공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행복의 양상이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며, 기부 제공자의 행복 경험 양상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물론, 기부 과제에서 기부 금액은 연구 참가자들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연구자가 실험 조작을 가한 설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과의 방향에 대한 해석에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부에 따른 쾌락적 행복의 증가 정도에는 친사회적 집단과 자기중심적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자기실현적 행복의 증가 정도에서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친사회적 성향의 참가자들이 기부 결과 자기실현적 행복을 더 크게 경험하는 이유로 자기관련도와 가치관의 실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타인을 돕는 행동에 더 깊게 관여함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과 타인의 안녕의 가치를 유사하게 처리하며(Sul et al., 2015), 이러한 처리방식은 친사회적 성향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Van Lange, 1999; Van Lange et al., 2007a; Van Lange et al., 2007b), 다양한 도움 행동에 더 많이(De Cremer & Van Lange, 2001; McClintock & Allison, 1989), 더 빨리 개입하는 이유로도 제안되고 있다(Hackel, Wills, & Van Bavel, 2020; Hutcherson, Bushong, & Rangel, 2015; Krajbich, Bartling, Hare, & Fehr, 2015). 본 연구에서도 친사회적 집단($M = 5,673$ 원, $SD = 2,144$)이 자기중심적 집단($M = 4,143$ 원, $SD = 2,069$)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t(38) = 2.234, p = 0.031$), 기부 과제에 더 깊게 관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친사회적 사회 가치 지향성은 가까운

타인이나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자기초월적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eilman & Kusev, 2020; Sagiv, Sverdluk, & Schwarz, 2011; Van Lange, Agnew, Harinck, & Steemers, 1997), 기부 과제에서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이러한 핵심 가치관을 실현시켜주는 행동이다. 따라서 친사회적 성향의 참가자들이 기부 과제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고, 기부를 통해 더 큰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기부에 관여하는 정도를 함께 측정하여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른 행복 경험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형 혼합 모형에서 관찰된 행복 유형의 주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기부금의 크기와 사회 가치 지향성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행복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가자들이 기부금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자기실현적 행복에 비해 쾌락적 행복을 더 높게 보고함을 보여준다. 기부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 기부금을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최적 효용을 반영하는 주관적 가치로 바라볼 수 있음을 제안한다(Andreoni, 1990; Hare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를 해석한다면, 한 개인이 다양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평균한 값은 그 개인의 최적 효용 수준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복 유형의 주효과는 최적 효용 수준의 기부에서는 의미보다 즐거움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기부금액에 따른 행복의 증가 정도를 살펴보면 자기실현적 행복이 쾌락적 행복보다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최적 효용을 넘어선 어느 지점에서는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이 교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부의 결과 경험하는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이 교차되는 지점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 행동과 쾌락적 행복, 자기실현적 행복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 행동과 이를 통해 경험하는 쾌락적, 자기실현적 행복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탐색하고 친사회성의 개인차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부와 행복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양한 개인차 요인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의 속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부와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움 행동과 행복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부금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나타나는 매순간의 행복의 변화 양상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도움 행동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참가자의 기부금에 대한 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도움 행동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인과적 관련성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기저 행복을 측정하고, 실험 조작을 통하여 기부 여부에 따른 행복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움 행동과 행복 경험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개인, 집단 및 국가 단위에서 상호 간의 협력 및 도움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기부와 같은 도움 행동의 주된 초점은 수혜자의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도움 제공자의 긍정적 경험 또한 또 다른 측면의 이익인 동시에 (Dunn et al., 2008), 도움 행동을 지속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따라서 도움 제공자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친사회성의 함양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중요한 실체적 함의도 지닌다. 본 연구에

서는 자선단체 기부 맥락에서, 도움 제공자가 도움의 결과로서 경험하는 행복을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으로 구분하고, 친사회성의 개인차에 따라서 행복 경험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움 행동이 도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의 행복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발견을 확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도움 제공자가 경험하는 행복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부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행복 양상에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자선단체 기부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친사회행동으로 본 연구의 발견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방준호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개인의 친사회성 및 협력과 관련된 신경기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종안은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했다.

최인철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부임했고, 2010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저서로 『프레임』, 『굿 라이프』 등이 있다.

설선혜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미국 다트머스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사회적 의사결정과 친사회적 행동, 행복의 심리신경학적 기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설선혜, 이민우, 김학진 (2014). 이타적 강화학습 과제를 이용한 이타성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67-492.
- Aknin, L. B., Barrington-Leigh, C. P., Dunn, E. W., Helliwell, J. F., Burns, J., Biswas-Diener, R., Kemeza, I., Nyende, P., Ashton-James, C. E., & Norton, M. I. (2013). Prosocial spending and well-being: Cross-cultural evidence for a psych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635-652. doi:10.1037/a0031578
- Aknin, L. B., Dunn, E. W., & Norton, M. I. (2012). Happiness runs in a circular motion: Evidence for a positive feedback loop between prosocial spending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47-355. doi:10.1007/s10902-011-9267-5
- Aknin, L. B., Hamlin, J. K., & Dunn, E. W. (2012). Giving leads to happiness in young children. *Plos One*, 7(6), e39211. doi:10.1371/journal.pone.0039211
- Andreoni, J. (1989).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6), 1447-1458. doi:10.1086/261662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477. doi:10.2307/2234133
- Anic, P., & Tončić, M. (2013). Orientations to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goals. *Psibologijske Teme*, 22(1), 135-153.
-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4489), 1390-1396. doi:10.1126/science.7466396
- Balliet, D., Parks, C., & Joireman, J. (2009).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A meta-analysi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4), 533-547. doi:10.1177/1368430209105040
- Bates, D., Maechler, M., Bolker, B., & Walker, S. (2015). Fitting linear mixed-effects models using lme4.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67(1), 1-48. doi:10.18637/jss.v067.i01
- Baumann, D. J., Cialdini, R. B., & Kendrick, D. T. (1981). Altruism as hedonism: Helping and self-gratification as equivalent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6), 1039-1046. doi:10.1037/0022-3514.40.6.1039
- Baumeister, R. F., Vohs, K. D., Aaker, J. L., & Garbinsky, E. N. (2013).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a happy life and a meaningful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6), 505-516. doi:10.1080/17439760.2013.830764
- Berzonsky, M. D., Ciecuch, J., Duriez, B., & Soenens, B. (2011). The how and what of identity formation: Associations between identity styles and value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95-299. doi:10.1016/j.paid.2010.10.007
- Bogaert, S., Boone, C., & Declerck, C. (2008).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A review and conceptual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3), 453-480. doi:10.1348/014466607X244970
- Brethel-Haurwitz, K. M., & Marsh, A. A. (2014). Geographic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predict extraordinary altruism. *Psychological Science*,

- 25(3), 762-771. doi:10.1177/0956797613516148
- Cialdini, R. B., Baumann, D. J., & Kenrick, D. T. (1981). Insights from sadness: A three-step model of the development of altruism as hedonism. *Developmental Review, 1*(3), 207-223. doi:10.1016/0273-2297(81)90018-6
- Cialdini, R. B., & Kenrick, D. T. (1976). Altruism as hedonism: A social development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mood stat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5), 907-914. doi:10.1037/0022-3514.34.5.907
- Dambrun, M., & Ricard, M. (2011). Self-centeredness and selflessness: A theory of self-base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ts consequences for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5*(2), 138-157. doi:10.1037/a0023059
- Deci, E. L., & Ryan, R. M. (2008). Hedonia, eudaimonia, and well-be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1-11. doi:10.1007/s10902-006-9018-1
- De Cremer, D., & Van Dijk, E. (2002). Reactions to group success and failure as a function of identification level: A test of the goal-transformation hypothesis in social dilemma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5), 435-442. doi:10.1016/S0022-1031(02)00009-4
- De Cremer, D., & Van Lange, P. A. (2001). Why prosocials exhibit greater cooperation than proselves: The role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reciproc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1_suppl), S5-S18. doi:10.1002/per.418
- De Groot, J. I., & Steg, L. (2009). Mora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awareness, responsibility, and norm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4), 425-449. doi:10.3200/SOCP.149.4.425-449
- Diener, E. (2009a).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In E. Diener (Ed.), *Assessing well-being* (Vol. 39, pp. 25-65). Dordrecht: Springer. doi:10.1007/978-90-481-2354-4_3
- Diener, E. (2009b).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Ed.), *The science of well-being* (Vol. 39, pp. 11-58). Dordrecht: Springer. doi:10.1007/978-90-481-2350-6_2
- Dunn, E. W., Aknin, L. B., & Norton, M. I. (2008). Spending money on others promotes happiness. *Science, 319*(5870), 1687-1688. doi:10.1126/science.1150952
- Dunn, E. W., Whillans, A. V., Norton, M. I., & Aknin, L. B. (2020). Prosocial spending and buying time: Money as a tool for increasing subjective well-being. In B. Gawronski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1, pp. 67-126). Cambridge, MA: Academic Press. doi:10.1016/bs.aesp.2019.09.001
- Fehr, E., & Fischbacher, U. (2003). The nature of human altruism. *Nature, 425*(6960), 785-791. doi:10.1038/nature02043
- Habashi, M. M., Graziano, W. G., & Hoover, A. E. (2016). Searching for the prosocial personality: A Big Five approach to linking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9), 1177-1192. doi:10.1177/0146167216652859
- Hackel, L. M., Wills, J. A., & Van Bavel, J. J. (2020). Shifting prosocial intuitions: Neurocognitive evidence for a value-based account of group-based coopera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5*(4), 371-381. doi:10.1093/scan/nsaa055
- Harbaugh, W. T., Mayr, U., & Burghart, D. R. (2007). Neural responses to taxation and voluntary giving reveal motives for charitable donations. *Science, 316*(5831), 1622-1625. doi:10.1126/science.1140738

- Hare, T. A., Camerer, C. F., Knöpfle, D. T., O'Doherty, J. P., & Rangel, A. (2010). Value computations in 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 during charitable decision making incorporate input from regions involved in social cognition. *Journal of Neuroscience*, 30(2), 583-590. doi:10.1523/JNEUROSCI.4089-09.2010
- Heilman, R. M., & Kusev, P. (2020). Personal Values Associated with Prosocial Decisions. *Behavioral Sciences*, 10(4), 77-85. doi:10.3390/bs10040077
- Hein, G., Morishima, Y., Leiberg, S., Sul, S., & Fehr, E. (2016). The brain's functional network architecture reveals human motives. *Science*, 351(6277), 1074-1078. doi:10.1126/science.aac7992
- Hinrichs, A., Picker, S., Schneider, A., Lefering, R., Neugebauer, E., & Gathof, B. (2008). Effect of blood donation on well being of blood donors. *Transfusion Medicine*, 18(1), 40-48. doi:10.1111/j.1365-3148.2007.00805.x
- Hui, B. P., Ng, J. C., Berzaghi, E., Cunningham-Amos, L. A., & Kogan, A. (2020). Rewards of kindness? A meta-analysis of the link between prosociality and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46(12), 1084-1116. doi:10.1037/bul0000298
- Huta, V. (2017). An overview of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concepts. In L. Reinecke, & M. B. Oliver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media use and well-be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ory and research on positive media effects* (pp. 14-33). NY: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doi:10.4324/9781315714752
- Hutcherson, C. A., Bushong, B., & Rangel, A. (2015). A neurocomputational model of altruistic choice and its implications. *Neuron*, 87(2), 451-462. doi: 10.1016/j.neuron.2015.06.031
- Isen, A. M., & Levin, P. F. (1972). Effect of feeling good on helping: Cookies and kin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3), 384-388. doi:10.1037/h0032317
- Izuma, K., Saito, D. N., & Sadato, N. (2010). Processing of the incentive for social approval in the ventral striatum during charitable don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2(4), 621-631. doi:10.1162/jocn.2009.21228
- Kahneman, D. (1999). Objective Happines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3-25). NY: Russell Sage Foundation. doi:10.7758/9781610443258.5
- Krajbich, I., Bartling, B., Hare, T., & Fehr, E. (2015). Rethinking fast and slow based on a critique of reaction-time reverse inference. *Nature Communications*, 6(1), 1-9. doi:10.1038/ncomms8445
- Kramer, R. M., McClintock, C. G., & Messick, D. M. (1986). Social values and cooperative response to a simulated resource conservation crisis. *Journal of Personality*, 54(3), 576-582. doi:10.1111/j.1467-6494.1986.tb00413.x
- Kuhlman, D. M., & Marshello, A. (1975).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game motives of own, relative, and joint gai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3), 240-251. doi:10.1016/0092-6566(75)90020-3
- Kuznetsova, A., Brockhoff, P. B., & Christensen, R. H. (2017). lmerTest package: Tests in linear mixed effects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2(1), 1-26. doi:10.18637/jss.v082.i13
- Liebrand, W. B. (1984). The effect of social motives, communication and group size on behaviour in an N person multi stage mixed motive gam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 239-264. doi:https://doi.org/10.1002/ejsp.2420140302
- Luke, S. G. (2017). Evaluating significance in linear mixed-effects models in R. *Behavior Research*

- Methods*, 49(4), 1494-1502.
doi:10.3758/s13428-016-0809-y
- McClintock, C. G., & Allison, S. T. (1989).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helping behavio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4), 353-362
doi:10.1111/j.1559-1816.1989.tb00060.x
- McMahan, E. A., & Estes, D. (2011). Measuring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The beliefs about well-being sca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 267-287. doi:10.1007/s10902-010-9194-x
- Messick, D. M., & McClintock, C. G. (1968). Motivational bases of choice in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25. doi:10.1016/0022-1031(68)90046-2
- Midlarsky, E. (1991). Helping as coping. In M. 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 238-264).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Moll, J., Krueger, F., Zahn, R., Pardini, M., de Oliveira-Souza, R., & Grafman, J. (2006). Human fronto - mesolimbic networks guide decisions about charitable don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42), 15623-15628. doi:10.1073/pnas.0604475103
- Molm, L. D., Schaefer, D. R., & Collett, J. L. (2007). The value of reciproc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2), 199-217.
- Moynihan, D. P., DeLeire, T., & Enami, K. (2015). A life worth living: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 values and happines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5(3), 311-326. doi:10.1177/0275074013493657
- Murphy, R. O., Ackermann, K. A., & Handgraaf, M. (2011). Measuring social value orienta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6(8), 771-781.
doi:10.2139/ssrn.1804189
- Nowak, M. A., & Sigmund, K. (2005). Evolution of indirect reciprocity. *Nature*, 437(7063), 1291-1298. doi:10.1038/nature04131
- Pearce, K., Huta, V., & Voloaca, M. (2020). How eudaimonic and hedonic orientations map onto seeing beyond the 'me, now, and tangibl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2.
doi:10.1080/17439760.2020.1791943
- Peirce, J. W. (2007). PsychoPy-psychophysics software in Python.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s*, 162(1-2), 8-13.
doi:10.1016/j.jneumeth.2006.11.017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doi:10.1007/s10902-004-1278-z
- Piliavin, J. A., Callero, P. L., & Evans, D. E. (1982). Addiction to altruism? Opponent-process theory and habitual blood do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200-1213. doi:10.1037/0022-3514.43.6.1200
- Pletzer, J. L., Balliet, D., Joireman, J., Kuhlman, D. M., Voelpel, S. C., Van Lange, P. A. M., & Back, M. (2018). Social value orientation, expectations,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A meta -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1), 62-83. doi:10.1002/per.2139
- Post, S. G.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2), 66-77.
doi:10.1207/s15327558ijbm1202_4
- Pruyn, A., & Riezebos, R. (2001). Effects of the awareness of social dilemmas on advertising budget-setting: A scenario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1), 43-60.
doi:10.1016/S0167-4870(00)00036-2
- R Core Team.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s://www.R-project.org>.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doi:10.1146/annurev.psych.52.1.14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doi: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1), 14-23.
doi:10.1159/000289026
- Sagiv, L., Sverdlik, N., & Schwarz, N. (2011). To compete or to cooperate? Values' impact on perception and action in social dilemma gam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1), 64-77. doi:10.1002/ejsp.729
- Schaller, M., & Cialdini, R. B. (1988). The economics of empathic helping: Support for a mood management mo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2), 163-181.
doi:10.1016/0022-1031(88)90019-4
- Sober, E., & Wilson, D. S. (2013). 타인에게로: 이타 행동의 진화와 심리학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설선혜, 김민우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Son, J., & Wilson, J. (2012). Volunteer work and hedonic, eudemonic, and social well being. *Sociological Forum*, 27(3), 658-681.
doi:10.1111/j.1573-7861.2012.01340.x
- Steger, M. F., Kashdan, T. B., & Oishi, S. (2008). Being good by doing good: Daily eudaimonic activity and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22-42.
doi:10.1016/j.jrp.2007.03.004
- Stouten, J., De Cremer, D., & Van Dijk, E. (2005). All is well that ends well, at least for proselves: Emotional reactions to equality violation as a function of social value orient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6), 767-783.
doi:10.1002/ejsp.276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82-493.
doi:10.1037/0022-3514.74.2.482
- Sul, S., Tobler, P. N., Hein, G., Leiberg, S., Jung, D., Fehr, E., & Kim, H. (2015). Spatial gradient in value representation along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reflects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social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25), 7851-7856.
doi: 10.1073/pnas.1423895112
- Switzer, G. E., Simmons, R. G., & Dew, M. A. (1996). Helping unrelated strangers: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actions to the bone marrow donation process among anonymous dono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6), 469-490.
doi:10.1111/j.1559-1816.1996.tb02726.x
- Van Lange, P. A. M. (1999). The pursuit of joint outcomes and equality in outcomes: An integrative model of social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337-349. doi:10.1037/0022-3514.77.2.337
- Van Lange, P. A. M., Agnew, C. R., Harinck, F., & Steemers, G. E. (1997). From game theory to real life: How social value orientation affects willingness to sacrifice in ongoing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330-1344.
doi:10.1037/0022-3514.73.6.1330
- Van Lange, P. A. M., Bekkers, R., Schuyt, T. N., & Vugt, M. V. (2007a). From games to giving: Social value orientation predicts donations to

- noble caus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9(4), 375-384. doi:10.1080/01973530701665223
- Van Lange, P. A. M., De Bruin, E. M. N., Otten, W., & Joireman, J. A. (1997). Development of prosocial,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orientations: Theory and preliminar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33-746. doi:10.1037/0022-3514.73.4.733
- Van Lange, P. A. M., De Cremer, D., Van Dijk, E., & Van Vugt, M. (2007b). Self-interest and beyond.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2nd ed* (pp. 540-561). NY: The Guilford Press
- Van Lange, P. A. M., & Kuhlman, D. M. (1994). Social value orientations and impressions of partner's honesty and intelligence: A test of the might versus moral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126-141. doi:10.1037/0022-3514.67.1.126
- Van Tongeren, D. R., Green, J. D., Davis, D. E., Hook, J. N., & Hulseley, T. L. (2016). Prosociality enhances meaning in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3), 225-236. doi:10.1080/17439760.2015.1048814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78-691. doi:10.1037/0022-3514.64.4.678
- Wheeler, J. A., Gorey, K. M., & Greenblatt, B.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69-79. doi:10.2190/vump-xcmf-fqyu-v0jh
- Wilhelm, M. O., & Bekkers, R. (2010). Helping behavior, dispositional empathic concern, and the principle of ca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1), 11-32. doi:10.1177/0190272510361435
- Zillmer, E., Glidden, R., Honaker, L., & Meyer, J. (1989). Mood states in the volunteer blood donor. *Transfusion*, 29(1), 27-30. doi:10.1046/j.1537-2995.1989.29189101159.x
- Zimbardo, P. G., & Boyd, J. N. (2015).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In M. Stolarski, N. Fiulaine, & W. van Beek (Eds.),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pp. 17-55). Zug,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doi:10.1007/978-3-319-07368-2_2

1 차원고접수 : 2021. 11. 02.

수정원고접수 : 2021. 12. 02.

최종게재결정 : 2021. 12. 03.

**Pleasure and meaning of charitable donation:
the effect of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giving on hedonic vs.
eudaimonic happiness**

Junho B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Jongan Cho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cheo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hae Sul

Pusan National University

Helping enhances happiness of both the beneficiary and the giver. Previous happiness studies have shown that help-giving is associated with eudaimonic happiness such as meaning of life and sense of accomplishment, whereas decision-making studies focusing on the utility of helping hav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hedonic happiness such as feeling more positive affect and less negative affe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givers' happiness experience after helping others using a charitable donation task. We first examined which aspect of happiness (i.e., hedonic vs. eudaimonic) i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givers' experience. Then, we tested the effect of givers' prosociality on the patterns of happiness experience. For each trial, participants were presented information about one of 54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asked to decide the amount of donation out of 10,000KRW. After each decision, they evaluated their happiness experiences on the two aspects of happiness.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sociality were measured using social value orientation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within an individual, donation amou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aspects of happiness, while eudaimonic happiness had stronger association. This difference was especially prominent among prosocial participants, while the effects of donation on hedonic and eudaimonic happiness were not different among proself participants. By distinguishing hedonic and eudemonic aspects of happiness and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sociality, our findings add to the literature on the happiness enhancement effects of help-giving.

Key words : Helping, Donation, Hedonism, Eudaimonism, Social value orientation

부록 I: 예비 설문 문항

실제 활동 중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과제를 제작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100개의 자선단체의 친숙성, 자신과의 관련성, 종교성, 신뢰도, 영향력을 측정하는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해 평정되었다.

1. 친숙성: 친숙성이란 대상을 자주 보거나, 듣고, 접함으로 느끼는 익숙한 정도, 친근한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시되는 자선단체에서 얼마나 친숙성을 느끼십니까?
2. 자신과의 관련성: 관련성이란 두 대상 간 가까운 정도 혹은 두 대상이 서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시되는 자선단체가 얼마나 자신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3. 종교성: 제시되는 자선단체가 특정 종교와 얼마나 관련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4. 신뢰도: 신뢰도란 대상이 대상의 역할을 속임 없이 공정하고, 잘 수행하기에 대상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시되는 자선단체에서 얼마나 신뢰도를 느끼십니까?
5. 영향력: 영향력이란 대상의 효과,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를 의미합니다. 제시되는 자선단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II: 예비 설문 기술 통계량

자선단체이름	친숙성 M (SD)	자신과의 관련성 M (SD)	종교성 M (SD)	신뢰도 M (SD)	영향력 M (SD)
해비타트	2.38 (1.50)	1.69 (0.93)	1.50 (0.71)	2.92 (1.09)	2.85 (1.12)
코피온	1.50 (0.99)	1.42 (0.70)	2.04 (0.92)	2.42 (0.99)	2.42 (1.10)
홀트아동복지회	1.85 (1.38)	1.46 (0.76)	2.19 (1.41)	2.73 (1.12)	2.54 (1.17)
팀엔팀	1.15 (0.37)	1.38 (0.64)	1.96 (1.18)	2.69 (1.05)	2.31 (1.05)
UN난민기구	4.35 (0.75)	2.12 (1.14)	1.46 (0.76)	4.42 (0.64)	4.42 (0.70)
플랜코리아(PLAN)	1.54 (0.99)	1.60 (0.71)	1.65 (0.98)	2.38 (0.75)	2.19 (0.80)
옥스팜	1.42 (0.81)	1.69 (0.88)	1.50 (0.86)	2.15 (0.88)	2.04 (0.96)
국경없는 의사회	4.31 (0.88)	2.12 (1.07)	2.00 (0.98)	4.19 (0.85)	4.35 (0.98)
그린피스 코리아	3.50 (1.48)	1.85 (0.83)	1.50 (0.81)	3.12 (1.11)	3.42 (1.17)
기아대책	1.81 (1.17)	1.35 (0.49)	3.23 (1.61)	2.08 (0.84)	2.46 (0.95)
밀알복지재단	1.58 (0.86)	1.50 (0.65)	1.92 (1.09)	2.46 (0.86)	2.15 (0.83)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2.62 (1.2)	1.73 (1.12)	1.35 (0.56)	3.27 (0.92)	3.00 (1.06)
한국심장재단	1.42 (0.76)	1.54 (0.65)	1.38 (0.70)	2.88 (0.82)	2.73 (0.87)
굿네이버스	3.92 (1.16)	2.19 (0.94)	2.12 (1.11)	3.35 (1.13)	3.54 (1.14)
인천사회사업재단	1.23 (0.51)	1.81 (0.90)	1.50 (0.71)	2.38 (0.90)	2.15 (0.88)
엔젤스헤이븐	1.12 (0.33)	1.50 (0.76)	2.27 (1.37)	2.42 (0.90)	1.96 (0.82)
불국토	1.77 (1.11)	1.73 (0.87)	1.27 (0.72)	2.77 (0.95)	2.19 (1.02)
에코피스 아시아	1.46 (0.71)	1.58 (0.70)	1.38 (0.75)	2.54 (0.81)	2.35 (0.75)
함께하는 한숲	1.08 (0.27)	1.42 (0.58)	1.35 (0.63)	2.62 (0.90)	2.19 (0.85)
위드	1.38 (0.75)	1.58 (0.81)	1.46 (0.58)	2.23 (0.82)	2.19 (0.80)
글로벌케어	1.35 (0.63)	1.42 (0.76)	1.77 (0.91)	2.46 (0.81)	2.15 (0.92)
씨빙프랜즈인터네셔널	1.15 (0.46)	1.27 (0.45)	1.58 (0.90)	2.19 (0.75)	2.12 (1.07)
한국근육장애인협회	1.15 (0.37)	1.35 (0.49)	1.19 (0.49)	2.42 (1.03)	1.81 (0.75)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19 (1.30)	1.81 (0.90)	1.31 (0.62)	2.92 (0.98)	2.65 (0.85)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38 (0.90)	1.12 (0.33)	1.81 (1.33)	2.23 (0.86)	2.23 (0.82)
굿하트	1.54 (0.95)	1.46 (0.65)	1.62 (0.75)	2.50 (0.95)	2.27 (1.00)
함께하는 마음재단	1.08 (0.27)	1.04 (0.20)	1.19 (0.40)	2.27 (1.00)	1.96 (1.00)
라이프	1.38 (0.64)	1.65 (0.89)	1.38 (0.64)	2.65 (0.98)	2.23 (0.91)
UNEP	1.31 (0.62)	1.46 (0.65)	1.42 (0.81)	2.77 (0.91)	2.46 (0.99)
생명누리	1.42 (0.76)	1.42 (0.58)	1.92 (1.06)	2.04 (0.82)	2.12 (0.8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3.54 (1.45)	2.27 (1.08)	1.73 (1.04)	3.08 (0.93)	3.12 (0.99)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푸드스마일즈	1.27 (0.60)	1.38 (0.50)	1.42 (0.90)	2.52 (0.71)	2.23 (0.91)
드림플	1.19 (0.49)	1.46 (0.51)	1.65 (0.94)	2.38 (0.80)	2.00 (0.89)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65 (1.02)	1.73 (0.67)	1.46 (0.65)	3.19 (0.80)	3.08 (0.89)
월드비전	4.19 (1.20)	2.19 (1.06)	2.38 (1.39)	3.50 (1.10)	4.08 (0.98)
희움	3.04 (1.59)	2.58 (1.06)	1.31 (0.79)	3.46 (1.07)	3.12 (1.14)
한국동물보호연합	2.81 (1.33)	2.38 (1.24)	1.31 (0.62)	3.19 (0.94)	3.00 (1.02)
피드 더 칠드런(Feed the children)	1.88 (1.07)	1.65 (0.85)	1.85 (0.97)	2.88 (0.71)	2.77 (0.99)
지파운데이션	1.38 (0.85)	1.46 (0.58)	1.38 (0.64)	2.42 (0.90)	2.23 (0.99)
열매나눔재단	2.31 (1.16)	1.84 (0.80)	1.54 (0.58)	3.15 (0.67)	2.73 (0.96)
비프랜드	1.69 (1.09)	1.58 (0.64)	1.65 (0.80)	2.62 (0.80)	2.50 (0.91)
부산아동복지후원회	1.85 (1.01)	2.08 (0.89)	1.31 (0.55)	2.77 (0.95)	2.35 (0.89)
월드투게더	1.65 (0.98)	1.38 (0.57)	1.88 (0.86)	2.69 (0.74)	2.46 (1.03)
본사랑	1.31 (0.74)	1.54 (0.76)	1.85 (0.83)	2.31 (0.93)	2.00 (0.75)
사랑의친구들	1.38 (0.70)	1.58 (0.76)	1.65 (0.85)	2.77 (0.71)	2.23 (0.82)
한국새생명사랑재단	1.46 (0.58)	1.46 (0.65)	1.58 (0.81)	2.62 (0.80)	2.31 (0.79)
다정한사람들	1.27 (0.53)	1.42 (0.58)	1.42 (0.76)	2.58 (0.76)	2.04 (0.77)
동물학대방지연합	1.54 (0.86)	1.77 (1.11)	1.27 (0.72)	2.85 (1.05)	2.38 (1.06)
한국동물보호협회	2.92 (1.20)	2.08 (1.13)	1.23 (0.51)	3.08 (0.98)	3.04 (1.00)
녹색연합	3.04 (1.40)	2.04 (1.04)	1.42 (0.81)	2.96 (1.15)	3.08 (1.20)
동물을 위한 행동	1.35 (0.85)	1.85 (1.19)	1.19 (0.40)	2.46 (0.99)	2.04 (0.82)
굿피플	1.58 (0.86)	1.35 (0.56)	1.92 (1.02)	2.58 (0.90)	2.62 (1.02)
사랑의 열매	4.27 (0.96)	2.19 (1.02)	2.23 (1.14)	2.92 (1.20)	3.69 (0.93)
한국소아마비협회	2.27 (1.19)	1.62 (0.80)	1.35 (0.63)	2.88 (0.99)	2.42 (1.0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 (1.10)	1.73 (0.72)	1.50 (0.81)	2.54 (0.90)	2.46 (1.03)
대한적십자회	4.31 (0.97)	2.50 (1.14)	2.85 (1.52)	3.23 (1.24)	4.31 (0.84)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15 (1.08)	1.81 (0.94)	1.20 (0.41)	3.12 (0.83)	2.85 (0.88)
아이들과 미래	1.15 (0.46)	1.81 (0.75)	1.50 (0.71)	2.31 (0.93)	1.88 (0.77)
사랑의 전화	2.04 (1.28)	1.69 (0.68)	1.50 (0.95)	2.62 (0.80)	2.58 (1.06)
기브스케어	1.38 (0.80)	1.62 (0.64)	1.54 (0.81)	2.31 (1.05)	2.08 (0.89)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1.85 (0.88)	1.48 (0.65)	1.42 (0.70)	2.58 (0.99)	2.50 (0.91)
글로벌비전	2.42 (1.21)	1.58 (0.70)	1.77 (0.86)	2.58 (0.86)	2.81 (0.98)
WECA	1.31 (0.74)	1.46 (0.76)	1.73 (1.00)	2.42 (0.86)	2.38 (0.94)
한국실명예방재단	1.15 (0.37)	1.92 (1.19)	1.23 (0.43)	2.69 (0.68)	2.19 (0.85)
다나	1.50 (0.91)	2.00 (1.06)	1.23 (0.51)	2.85 (1.19)	2.23 (1.03)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1.62 (0.90)	1.81 (0.90)	1.23 (0.51)	2.96 (0.82)	2.38 (1.02)

방준호 등 / 기부의 즐거움과 의미: 도움 제공자의 사회 가치 지향성에 따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 경험의 차이

내셔널트러스트	1.31 (0.84)	1.58 (0.86)	1.38 (0.80)	2.42 (0.90)	2.19 (0.75)
나눔의 집	3.46 (1.27)	2.27 (1.12)	1.38 (0.75)	3.73 (0.96)	3.54 (1.03)
서울환경연합	1.27 (0.60)	1.35 (0.56)	1.23 (0.51)	2.35 (0.98)	2.08 (0.93)
세계자연보호기금	2.38 (1.36)	1.96 (1.00)	1.38 (0.75)	3.23 (1.21)	3.00 (1.33)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1.58 (0.95)	1.81 (0.80)	1.35 (0.56)	2.77 (0.91)	2.77 (0.99)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1.88 (0.99)	2.15 (1.01)	1.23 (0.59)	2.73 (0.87)	2.65 (0.89)
ADRF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1.58 (0.99)	1.46 (0.71)	1.77 (0.91)	2.81 (0.69)	2.92 (1.02)
송인사회복지시설	1.19 (0.57)	1.62 (1.02)	1.56 (0.77)	2.38 (0.94)	2.12 (0.82)
한국소망복지재단	1.50 (0.95)	2.31 (1.16)	1.19 (0.49)	3.42 (0.90)	2.88 (0.97)
아름지기	1.27 (0.60)	1.46 (0.65)	1.23 (0.51)	2.65 (0.98)	2.15 (0.78)
독도마르케알기운동본부	1.65 (0.85)	2.19 (0.85)	1.12 (0.44)	2.88 (0.99)	2.38 (0.98)
부산봉사 반딧불	1.42 (0.81)	2.08 (1.09)	1.23 (0.43)	2.35 (1.16)	2.15 (0.92)
반크	3.00 (1.65)	2.27 (1.08)	1.31 (0.68)	3.04 (1.11)	2.62 (1.02)
서로돕는마을	1.23 (0.82)	1.62 (1.17)	1.58 (0.90)	2.23 (1.03)	1.88 (0.86)
유네스코(UNESCO)	4.62 (0.90)	2.77 (1.07)	1.50 (0.76)	4.12 (0.86)	4.46 (0.86)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4.27 (1.08)	2.54 (1.14)	2.04 (1.08)	3.42 (0.99)	3.92 (0.74)
유니세프(UNICEF)	4.65 (0.80)	2.81 (1.10)	1.88 (1.03)	4.00 (1.13)	4.58 (0.76)
컴패션(Compassion)	1.35 (0.56)	1.58 (0.81)	1.69 (0.74)	2.58 (0.81)	2.42 (0.95)
한국여성단체연합	2.15 (1.29)	2.27 (1.28)	1.27 (0.60)	2.08 (0.93)	2.54 (1.17)
한국다문화센터	2.15 (1.16)	1.88 (0.91)	1.38 (0.64)	2.92 (0.93)	2.65 (0.98)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62 (0.85)	1.31 (0.68)	1.54 (0.90)	2.46 (0.95)	2.31 (1.05)
생명의 숲	1.46 (0.65)	1.92 (0.84)	1.27 (0.53)	2.77 (0.91)	2.23 (0.86)
푸르메 재단	1.65 (0.98)	1.69 (0.79)	1.84 (0.80)	2.46 (0.76)	2.27 (0.96)
승가원	1.35 (0.69)	1.42 (0.64)	2.31 (1.35)	2.62 (0.90)	2.04 (0.92)
마보의 나눔	1.19 (0.63)	1.42 (0.64)	1.60 (0.87)	2.27 (0.87)	2.04 (0.92)
유진벨	1.23 (0.71)	1.31 (0.62)	1.58 (0.76)	1.96 (0.77)	2.00 (0.98)
환경재단	1.81 (0.85)	1.81 (0.75)	1.42 (0.70)	2.58 (0.90)	2.42 (1.10)
아름다운가게	3.96 (1.28)	2.62 (1.02)	1.35 (0.89)	3.65 (0.75)	3.50 (0.91)
승일희망재단	1.64 (0.91)	1.42 (0.70)	1.50 (0.81)	2.69 (0.93)	2.50 (0.99)
JS 파운데이션	1.58 (1.24)	1.38 (0.75)	1.19 (0.49)	2.77 (0.99)	2.27 (1.04)
마노 아 마노	1.23 (0.65)	1.92 (1.06)	1.38 (0.64)	2.65 (0.98)	2.04 (0.82)
최경주재단	1.50 (0.65)	1.19 (0.49)	1.15 (0.37)	2.85 (0.92)	2.23 (0.99)
에반젤리	1.19 (0.49)	1.31 (0.55)	1.96 (1.04)	2.54 (0.99)	2.00 (0.85)
양준혁 야구 재단	1.85 (1.08)	1.27 (0.83)	1.00 (0.00)	3.19 (1.02)	2.85 (0.78)

주. 진하게 표시된 자선단체는 기부 과제에 사용된 자선단체를 나타냄.